

## 세대갈등의 원인 분석: 세대계층론을 중심으로 본 20대와 70대의 갈등 원인\*

손병권\*\* · 박경미\*\*\* · 유성진\*\*\*\* · 정한울\*\*\*\*\*

###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세대 여론조사 자료분석을 통해서 본 |
| II. 세대갈등의 분석 필요성과 양대<br>연령집단의 선택 이유 | 한국 세대갈등의 요인             |
| III. 세대계층론을 통해서 본 갈등의 원인            | V. 결 론                  |

### ● 논문요약

세대계층론이 세대갈등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네 가지의 갈등원인 요인-공통의 역사적 경험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 세대 간 소통부재-가운데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70대 및 20대 연령집단과 70대 전후세대 및 20대 N포세대는 모두 소통부재를 세대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70대는 이와 함께 전체연령대와 전후세대 모두 역사적 공감대 부재를 아울러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반면, 20대는 전체연령대와 N포세대 모두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를 또 다른 중요한 원인요인으로 지적하

\* 이 논문은 2018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104)

\*\* 주저자, 중앙대학교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리서치

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과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합쳐서 보면 70대와 20대 연령집단보다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갈등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네 가지 각 원인요인별 의견의 격차는 70대 전체연령대와 20대 전체연령대 간의 각 원인요인별 의견의 격차와 비교해 볼 때 모두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불황에 따른 갈등과 세대 간 소통부재라는 두 원인요인에 있어서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의견의 격차는 단순한 70대 전체연령대와 20대 전체연령대 간의 의견의 격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연구가 시사하는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이 모두 양대 전체연령대 및 양대 정체성세대 간의 소통부재를 세대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대 간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주제어 :** 세대계층론, 세대갈등, 20대 연령집단, 70대 연령집단, 전후세대, N포세대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이 글은 현재 한국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 가운데 중요한 쟁점이슈의 하나로 부상한 세대갈등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글은 세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가운데 세대 간 갈등에 주목하는 ‘세대계층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세대 간 갈등에 주목하는 세대계층론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면서, 이들 논의에서 세대갈등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러한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의 원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원인이 시사하는 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이 글은 한국리서치가 2016년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sup>1)</sup> 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70대 이상(이하 '70대'로 약칭함)과 20대 연령집단의 응답을 토대로 세대갈등의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더하여 이 글은 이들 각각 연령집단 내부의 정체성세대인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정체성세대가 연령집단과 차별화된 갈등양상을 보이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세대문제의 논의에 있어서 먼저 연령집단을 분석하고, 이후 다시 각 연령집단 내 특정한 정체성세대를 재분석하는 것은 연령집단 간의 차이와 구별되는 또 다른 어떤 특성이 정체성세대 간의 2차적 분석을 통해서 발견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체성세대를 통한 분석의 유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sup>2)</sup>

## 2. 연구의 의의와 논의의 순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 분석을 위해 유용한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서 세대는 비슷한 출생시기를 공유하면서 또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집단으로 정의된다(Mannheim 1952: 290-291, 298; 박재홍 2009: 15-16; 박재홍 2017: 15). 특히 가족 간의 '미시적' 세대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세대문제를 논의할 경우 이러한 정의는 더욱 적실성을 띤다.<sup>3)</sup> 특정한 시기에 출생하여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일수록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같은 연령집단 내부에서 내적 동질감을 지니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상 '세대효과' 혹은 '코호트효과'라고 불리며,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세대 간에 갈등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최유석 2016: 13). 정리하자면 세대집단은 대체로 비슷한 출생시기,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공감대, 다른 연령집단과 구별되는 내적 응집력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지닌다고

1) 세대갈등에 관한 이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16년 연구진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세대별 정치사회인식에 대한 조사'의 결과자료이며, 한국리서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 정체성세대의 조작화에 대해서는 제II장의 제2절의 각주 6)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세대정의의 미시적, 거시적 구분에 대해서는 최유석(2016)의 12-1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이 비슷한 출생시기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세대’ 개념을 통해서 특정세대를 다른 세대와 구분하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더구나 여론조사 등에 기초하여 세대갈등의 문제 등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고자 할 경우 생애주기적 연령집단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세대구별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sup>4)</sup> 따라서 위에서 정의된 대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였고 공통의 사회적, 역사적 경험을 지닌 집단으로서 세대를 정의하고 이에 관한 문제를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출생의 동시대성’과 ‘역사적 경험의 공유’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에 봉착하여 사회계층론에 따른 세대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글은 위의 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10년 단위로 연령집단을 구분한 후 70대 및 20대 연령집단을 먼저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 다음 70대 연령집단 내에서 ‘전후세대’와 20대 연령집단 내에서 ‘N포세대’라는 정체성세대를 다시 추출하여 이들을 상호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10년 단위라는 고정된 생애기간을 설정한 후 분극화된 양대 연령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출생의 차이를 명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애기간의 차별화에 따른 연령집단에만 집착하는 것은 ‘사회적, 역사적 경험의 공유’라는 세대 정의의 또 다른 요소를 망실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각 연령집단 내에서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것으로 ‘스스로 인지하는’ ‘정체성세대’(70대 연령집단의 경우 전후세대와 20대 연령집단의 경우 N포세대)의 분석을 통해서 연령집단 분석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글은 출생시기 및 역사적, 사회적 경험의 공유라는 세대 정의의 중요한 양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70대 연령집단과 20대 연령집단, 그리고 전자의 전후세대와 후자의 N포세대를 세대갈등에 관한 세대계층론의 관

4) 이와 관련하여 박재홍(2009)은 세대에 대한 명칭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역사적 경험, 나이 혹은 생애주기 단계, 문화적·행태적 특성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박재홍 2009: 15쪽과 15쪽의 〈표 1〉).

점에서 비교해 나가고자 한다.<sup>5)</sup>

이와 같이 연령집단과 정체성세대를 통해서 세대를 2차원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만하임이 최초로 제시한 세대의 정의에도 부합한다. 만하임은 『세대의 문제』(The Problem of Generations)에서 세대를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30년 단위의 생애주기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사회적 위치'가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만하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생애주기, 즉 인간의 자연적인 노화과정 자체가 세대정의에서 무시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하임은 먼저 세대위치 역시 인간의 생물학적 리듬에 의해서 결정되며, 같은 세대란 탄생시기가 같고 이에 따라서 사회진전의 역사적 차원에서 같은 위치를 부여받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세대가 생물학적 시간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 결코 생물학적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설명하면서 세대의 사회적, 역사적 성격을 강조했던 것이다(Mannheim 1952: 290-291).

이러한 문제의식과 논의의 배경 하에서 이 글은 다음의 제II장에서는 먼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 중에서 세대갈등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와, 이 글이 다양한 연령집단 가운데 70대와 20대 연령집단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III장에서 세대계층론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세대갈등의 원인으로 '공통의 역사적 경험의 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 '세대 간 소통의 부재' 등의 네 가

5) 박재홍(2009)이 정확히 지적하듯이 특정 연령대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대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먼저 연구자에 의한 임의적 작명이라는 문제를 지닌다. 또한 무분별한 세대명칭 부여는 불필요한 세대 간의 대립을 조장할 수도 있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세대의 특징을 임의로 만들어 상업주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담을 수도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70대 및 20대 연령집단을 선택한 후 전자의 연령집단 내에서 응답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전후세대라고 선택한 집단과, 후자의 연령집단에서 마찬가지로 응답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N포세대라고 규정한 집단을 구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세대 정체성의 분류방식은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임의적 작명'의 문제를 연구설계 단계에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각주 6)과 함께 심사자 두 분이 지적한 바 '자의적 기준'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한다.

지 요소를 추출해 내고자 한다. 이어서 제IV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연령집단 간의 갈등, 연령집단 내 정체성세대(즉 70대의 전후세대와 20대의 N포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연령집단으로 본 세대갈등과 정체성세대로 본 세대갈등 간의 차이 등을 분석하여 세대갈등의 요인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제V장에서는 이 연구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 후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 II. 세대갈등의 분석 필요성과 양대 연령집단의 선택 이유

### 1. 한국 세대갈등 논의의 필요성

세계적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가 2017년 BBC방송의 의뢰를 받아서 세계 각국의 갈등(‘긴장’: tension)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27개국 전체평균으로 볼 때 가장 큰 갈등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 간의 갈등(44%), 빈부갈등(36%), 이민자와 내국인 간의 갈등(30%),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27%), 서로 다른 민족집단 간의 갈등(25%), 세대갈등 및 남녀갈등(각각 11%),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갈등(10%)의 순서로 나타났다. 순위로 보면 정치적 갈등과 빈부갈등, 이민자를 둘러싼 갈등, 종교 간 갈등 등이 각각 1, 2, 3, 4위를 차지했고, 세대갈등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psos MORI Social Research Institute 2017).

같은 입소스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27개국 평균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 세대갈등의 갈등순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갈등순위를 보면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른 갈등(61%), 빈부갈등(44%)에 이어서 세대갈등(25%)이 세 번째 순위로 올라서 있고, 그 다음에 남녀갈등(24%), 종교 간의 갈등(14%), 이민자와 내국인의 갈등(9%), 도농갈등(6%) 및 민족집단 간의 갈등(6%) 등이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족집단 간의 갈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이민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고서 봐야 하겠지만, 세대갈등은 정치적, 경제적 성격의 갈등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두고 볼 때 이 논문이 활용하는 한국리서치의 세대여론조사는 입소스의 조사결과와 차이를 보이면서도 일부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10개의 갈등항목에 대해서 한국리서치가 갈등수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4.29), 정규직과 비정규직(4.21), 부유층과 서민층(4.20), 진보와 보수(4.09), 기업가와 노동자(4.03), 대통령과 국회(3.96),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3.71), 영남과 호남(3.57), 수도권과 지방(3.51), 남성과 여성(3.35) 간의 갈등의 순서로 한국사회의 갈등의 순서가 나타나고 있다(5: 갈등이 매우 크다; 1: 갈등이 매우 작다). 입소스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대갈등이 전체 갈등순위에서 7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세대갈등보다 순위가 앞선 항목은 대부분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거나 경제적 갈등 등으로 민주화 이후 혹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고순위의 갈등양상을 보여 왔던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에 있어서 갈등은 입소스 세계여론조사에 나타난 바 한국에서 순위가 높은 갈등인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른 갈등이나 빈부갈등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갈등을 제외하고 보면 한국리서치의 결과에 나타난 세대갈등은 여전히 지역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남녀갈등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한국에 대한 입소스의 세계여론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입소스와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체로 보자면, 한국의 경우 세대갈등은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제외하고 보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정도의 갈등이라고 그 위상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실제로 최근 세대갈등에 관한 논의는 언론보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의 몇 년 전 언론기사는 경제가 여전히 불황인 상황에서 영화 ‘국제시장’에 대한 호불호의 평가와 정년연장의 논의의 출현과 관련하여 세대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청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는 더 부족해질 게 분명하다. 이대로 가면 노사 간, 계층 간 갈등을 넘어 세대 간 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그리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기 참 다행이라꼬.” 많은 젊은이가 영화 ‘국제시장’ 주인공 덕수의 독백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전쟁터면 밝은 지옥이다”는 드라마 ‘미생(未生)’의 대사에 더 공감을 나타낸다. 젊은이들에게 할아버지 세대의 노고에 대한 감상보다는 여전히 풍파 속에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절박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미생이라고 취업하고 싶고, 완생(完生)을 꿈꾸기보다 직장에서 잘려 ‘사석(死石)’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국제시장 세대와 ‘미생 세대’가 공생하려면,” 중앙일보, 1월 5일, 월요일, 28쪽)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취업난과 관련한 자조 섞인 유행어입니다. 최근에는 취업난과 관련해 청년 실업과 정년 연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판에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부족해진다는 것이지요. 일자리를 둘러싸고 세대 갈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청년 실업과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청년실업을 높인데 정년 연장 왜 필요할까요?” 조선경제,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B10쪽)

위의 두 기사에서 보듯이 장기 경제불황 속에서 과거 경제건설의 주역인 노년 세대에 대한 젊은이의 감정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표출될 수 있고, 기성세대의 정년연장 논의는 젊은이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이전세대의 사치로 비추어질 수 있다. 이제 세대갈등의 문제는 다른 문제와 함께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의 범주 안으로 들어왔다고 판단된다.



## 2. 70대 및 20대 연령집단의 선택 이유

이 글의 경험적 자료의 토대가 되는 2016년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각 연령집단 가운데 70대(3.76), 50대(3.76), 20대(3.76), 60대(3.73), 30대(3.63), 40대(3.60)의 순서대로 세대갈등을 느끼는 수준의 순서가 나타나고 있다(5: 매우 크다; 1: 매우 작다). 즉 70대, 50대, 20대는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세대갈등을 감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느끼는 세대갈등의 수준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다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70대 및 20대 연령집단의 분극화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1〉 연령집단 내 정체성세대(‘강한정체성’)의 인원과 비율(인원단위는 명; 비율은 %)

10세 단위 연령대			19~29	30~39	40~49	50~59	60~69	70+
전후 세대	기타 정체성	인원	154	160	169	136	80	37
		비율	95.7	93.6	88.9	76.8	63.0	50.7
	강한 정체성	인원	7	11	21	41	47	36
		비율	4.3	6.4	11.1	23.2	37	49.3
산업화 세대	기타 정체성	인원	151	164	159	104	75	46
		비율	93.8	95.9	83.7	58.8	59.1	63.0
	강한 정체성	인원	10	7	31	73	52	27
		비율	6.2	4.1	26.3	41.2	40.9	37.0
민주화 세대	기타 정체성	인원	147	141	139	126	97	51
		비율	91.3	82.5	73.2	71.2	76.4	69.9
	강한 정체성	인원	14	30	51	42	30	22
		비율	8.7	17.5	26.8	28.8	23.6	30.1

10세 단위 연령대			19~29	30~39	40~49	50~59	60~69	70+
정보화 세대	기타 정체성	인원	81	90	127	139	113	65
		비율	50.3	52.6	66.8	78.5	96.6	89.0
	강한 정체성	인원	80	61	73	38	14	8
		비율	49.7	47.4	33.2	21.5	3.4	11.0
386 세대	기타 정체성	인원	145	150	148	131	122	69
		비율	90.6	87.7	77.9	74.0	96.1	94.5
	강한 정체성	인원	15	21	42	46	5	4
		비율	8.4	22.3	22.1	26.0	3.9	5.5
N포 세대	기타 정체성	인원	102	135	173	164	125	70
		비율	63.4	78.9	91.1	92.7	98.4	95.9
	강한 정체성	인원	59	36	17	13	2	3
		비율	36.6	21.1	8.9	2.8	1.6	4.1

위의 도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20대로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강한 정체성을 보이는 전후세대,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반대로 70대로부터 점점 연령이 감소할수록 대체로 강한 정체성을 보이는 정보화세대, N포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sup>6)</sup> 즉 전반적으로 이 글이 다루는 70대와 20대의 연령집단은 생물학적

6) 이 글은 서론의 제1절 ‘문제의 제기’에서 이미 서술한대로 70대 및 20대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세대갈등의 양상을 분석하면서 70대 연령집단 내에 70대 ‘전후세대’라는 정체성세대와 20대 연령집단 내에 ‘N포세대’라는 정체성세대를 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이 글은 각각의 연령집단에 속하는 응답자가 다양하게 주어진 세대 가운데 전후세대(70대의 경우) 및 N포세대(20대의 경우)를 ‘자신이 속한 세대를 표현하는 용어’로 매우 적

인 연령의 차원에서 현저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공통의 사회적, 역사적 경험이라는 차원에서도 서로 대척점에 있는 정체성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up>7)</sup>

이러한 최고연령집단 및 최저연령집단 간의 대체적인 분극화 현상과 함께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70대 연령집단 내의 전후세대와 20대 연령집단 내의 N포세대의 경우 강한 정체성 응답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산업화세대나 민주화세대의 경우를 보면 50대에서 70대에 걸쳐 강한 정체성 집단의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고(50대, 60대, 70대의 순서대로 각각 41.2%, 40.9%, 37.0%와 28.8%, 23.6%, 30.1%), 정보화세대의 경우를 보면 20대와 30대 연령집단 간에 강한 정체성 집단의 비율의 격차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다(각각 49.7%와 47.4%). 반면 전후세대의 경우 70대의 강한 정체성 집단의 비율은 49.3%로 나타나 2순위인 60대의 37%와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다. 또한 N포세대의 경우 20대의 강한 정체성 집단의 비율은 36.6%로 2순위인 30대의 21.1%보다 현저히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70대와 20대 연령집단은 생애주기로 볼 때 분극화된 연령집단인면서, 동시에 다른 연령집단과 현저히 차별화되는 비율로 전후세대와 N포세대라는 정체성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집단으로서 70대와 20대가 또한 서로 다른 정체성세대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특히 N포세대와 전후세대라는 정체성세대로 볼 때에도 다른 어떤 연령집단과도 구분된다는 점 등에서 70대와 20대 연령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세대갈등의 요소가 매우 큰 집단의 비교에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sup>8)</sup>

---

절하다고 표현한 응답자들(8, 9, 10의 수치를 선택한 응답자들: 1-10의 척도 가운데 숫자가 클수록 더욱 적절하다는 의미임)을 전후세대 및 N포세대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척도를 통해서 8, 9, 10의 수치를 선택한 응답자를 정체성세대로 보는 점에 대해서 두 분의 심사자가 이를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글을 작성한 4인의 연구진은 연구설계 단계에서 정체성 집단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8, 9, 10 등의 가장 높은 숫자를 선택하는 응답자(최초 연구단계에서 '강한 정체성 집단'으로 분류하였음)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의하였고, 1, 2, 3 등을 선택한 응답자를 최초 연구단계에서 '비정체성 집단,' 그리고 4, 5, 6, 7 등을 선택한 응답자를 '약한 정체성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7) 다만 386세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연령집단의 증가에 따른 선행적 경향을 보이지 않고 30대, 40대, 50대의 연령집단에 비슷하게 강한 정체성을 보이는 집단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리서치의 결과 이외에도 실제로 양대 연령집단 간에 상당한 세대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역시 적지 않다. 먼저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함께 노년세대에 대한 복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동시에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청년 실업문제가 대두되어 이들 양대 세대의 세대통합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순돌 외 2018). 이와 함께 특히 이 글이 다루는 20대 연령집단과 70대 연령집단은 다른 어떤 연령집단이나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집단의 경우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하다는 연구도 있다(정순돌 외 2016). 뿐만 아니라 정재훈에 따르면 기초연금, 주택연금, 장기요양제도 등 노년에 대한 정부의 시혜성 정책은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반해서, 청년의 경우 실업대책 이외에는 주거, 복지, 건강 등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미비한 형편이어서 양대세대 간에는 잠재적 갈등요소가 존재하고 있다(정재훈 2016).<sup>9)</sup> 이러한 연구결

8) 심사자 가운데 한 분은 이미 매우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70대와 20대의 연령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또 다른 심사자는 매우 소수의 응답자로 나타나는 정체성세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경청해야 하는 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어떤 연령집단의 응답자 숫자가 작거나 혹은 특정 정체성 세대 응답자의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대 연령집단과 이러한 연령집단 내의 정체성 세대를 다양하게 비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들 양대 연령집단 간에 그리고 각각 세대의 정체성 집단 간에 차이와 갈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함께 어떠한 이론적 시각을 통해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 역시 이러한 잠재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추진한 동기가 되었다. 또한 한 심사자께서 동일 연령대 안에서 왜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첫째, 방법론적으로 각주 6)에 제시된 분류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며, 둘째, 이론적으로도 단순히 생주기적인 연령집단과 그 세대 내에서 특정한 정서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체성 세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많은 경우 이 양자는 같은 방향의 응답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령집단 간 혹은 정체성 세대 간 비교분석을 위한 '강한 정체성 집단'을 따로 추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집단 내 분기현상이 나타났다.

9) 한편 한국의 경우 정재훈이 지적한 것과는 달리 연금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러한 분야에서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길성(2011)을 참조하기 바란다. 양대 주장이 정확히 동일한 성격의 정부정책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과를 토대로 볼 때 70대 연령집단과 20대 연령집단을 추출하여 정체성세대의 논의와 함께 세대갈등의 주요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이며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보인다.

### III. 세대계층론을 통해서 본 갈등의 원인

#### 1. 세대계층론의 내용과 특징

이 글이 한국의 세대갈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원용하는 세대계층론이 세대를 하나의 ‘계층’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이 개념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망라할 수 있는 분석단위로서 유용하다는 데에 있다. 생애주기적으로 구분하든 혹은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경험을 공유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로 구분하든 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계층’은 특정한 계층의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을 구분해 낼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이 된다. 또한 세대계층론이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구별된 세대 간에 ‘차별’ 혹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또한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세대계층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세대이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대계층론은 전반적으로 세대라는 분석단위를 사용하여 세대 간에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세대라는 개념을 동원하는 주요한 목적은 특정기간 내에서 존재하는 연령집단 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회변화와 미래 진행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에 있다. 둘째, 세대 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세대계층론이 주목하는 것은 모든 세대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대체로 10대 후반에서 20~30대의 연령층에 속하는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혹은 젊은세대와 장년·노년·은퇴세대 간의 갈등이

---

수년 동안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재원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노년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갈등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사실일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할 수 있다. 세대계층론은 만하임적 의미에서의 ‘신선한 충격’(Mannheim 1952: 293), 젊은세대의 이상실현 욕구,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갈등, 특정한 사회경제적 구조, 그리고 이와는 무관한 생주기적인 현상 등 다양한 원인에 주목하면서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에는 갈등의 요인이 상시적으로 잠재해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계층갈등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는 세대계층론은 이러한 세대갈등 잠재성의 상시성과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회구조적인 맥락’이나 ‘특정한 정치적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갈등이 드러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즉 세대갈등은 상시적이고 보편적일 수 있지만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나 사회변혁기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따라서 이론적 분석단위로서의 세대는 이러한 특정한 시기에 사회변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 세대계층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예비적 논의를 배경으로 아래에서는 다양한 세대계층론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한국 세대갈등의 다양한 원인을 추출해 보기로 한다.

## 2. 다양한 세대계층론를 통해서 본 갈등의 원인

### 1) 포너의 세대계층론과 정치적 이념성향의 요인

우선 1974년 포너(Ann Foner)가 발표한 세대계층론 논문(Foner 1974)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젊은세대의 저항운동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젊은세대가 제기한 반전, 평화, 사회정의라는 메시지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포너는 세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회변동의 양상을 포착할 수 있으며, 세대간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노령화현상’(aging)과 ‘또래 연령집단의 연속등장’(cohort succession)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포너는 세대라는 개념이 계급, 성, 민족집단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동과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포너는 능력이나 동기 등을 공유하는, 연령이나 생애단계가 유사한 사람들로 구

성된 ‘연령계층’(age strata)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연령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진입과 이탈, 그리고 차별화된 보상과 책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포너는 차별화된 연령계층은 궁극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불평등하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Foner 1974: 188).

그러면 연령으로 인한 세대 간 차별화현상이 도래하는 메카니즘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포너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노령화현상(aging)이며, 다른 하나는 또래 연령집단의 연속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메카니즘에 따르면 젊은세대는 진보적인데 비해서 노령화현상이 진행되면서 기성세대는 일반적으로 보수화되어 세대계층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며, 후자의 메카니즘은 이와는 달리 서로 다른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서로 다른 정치적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동시대에 사는 상이한 세대 간에 계층화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너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동시대의 특정한 복수의 연령집단은 ‘날카로운 양극화 세대계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Foner 1974: 188).

이와 같이 구조화된 불평등과 정치권력의 대립으로 비화될 수 있는 세대계층 간의 갈등잠재력을 설명한 이후, 포너는 ‘특정한 정치적 맥락’에서는 노령화현상과 동일 출생연령대 집단의 강력한 도전에 의해서 세대 간 갈등이 격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한 정치적 상황이 젊은세대로 하여금 급진적인 주장을 제기하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신선한 충격을 경험하면서 사회에 이제 막 진출한 또래 연령집단이 매우 급진적인 변혁이념을 보유한 경우, 세대계층 간 갈등과 대립은 강하게 나타나며 세대균열을 더욱 촉진될 것으로 포너는 보고 있다(Foner 1974: 191).<sup>10)</sup>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가 젊은세대로 하여금 사회변혁을 추동하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포너의 답변은 다음 절에 제시될 터너의 주장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포너는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와

10)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정치적 변화의 관점에서 세대갈등을 논의한 저작으로는 윤상철(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관련된 물질적인 이슈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세대계층간 갈등은 그다지 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 반면, 정의, 평화 등 정치적 이상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젊은세대의 변혁주장은 매우 강하게 제기될 것이므로, 이러한 이슈영역에서 세대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Foner 1974: 193-195). 포너는 젊은세대의 이상적 열망과 이로 인한 세대갈등은 사회적 자원배분보다는 이상의 실현과 이와 관련된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Foner 1974: 194-195). 이러한 포너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 글은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에 따른 세대갈등을 한국의 세대갈등을 야기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터너의 세대계층론과 경제적 불황에 따른 요인

위에서 설명된 포너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할 수 있는 ‘계층’(status)으로 세대를 인식하기 시작한 터너(Bryan Turner)의 일련의 저작들은 1980년대 이르러 복지국가를 뒷받침했던 경제적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노조의 저항이 거세짐과 동시에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영국의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후 195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복지국가의 혜택 속에서 국가가 당연히 충족시켜주어야 할 권리로 복지를 인식해 왔던 노령세대에 대한 위기로 다가왔다. 경제적 기여가 떨어지는 이들 노령세대에 대한 젊은세대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자, 터너는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세대갈등’이라는 세대계층론을 전개했다.

먼저 터너는 세대에 관한 계층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경제적 대립, 정치적 권리요구, 문화적 라이프 스타일이 상호작용하면서 세대갈등과 차별화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하였다(Turner 1989). 예컨대 일자리를 지니고 소득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관계는 일단 소득격차로 인한 경제적 계층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의문의 여지없이 지속된 시대에 작업장에서 일한 세대는 복지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는데 비해, 경제불황으로 인해 복지혜택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세대는 기성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현상은 사회에 대해 더 이상의 기여하지 못하는 노년세대에 대한 차별과 분노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불황 속에서 그나마 제공될 수 있는 국가재원은 사회에 진입하여 생산활동을 통해서 경제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세대에게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원이 여전히 복지국가의 권리의식을 지닌 노년세대에 제공될 경우, 이들 노년세대는 혐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낙인’(stigmatization)찍힌다는 것이 터너 주장 가운데 하나이다. 장기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사회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진행되면서 받은 복지혜택에 비해서 근로를 통한 사회적 기여가 적은 노령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갈등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Turner 1989: 603). 이와 같이 국가재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세대갈등이 발생한다는 터너의 세대계층론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한국의 세대갈등을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각도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3) 터너의 수정된 사회계층론과 공통의 역사적 경험부재의 요인

터너의 세대계층론을 ‘세대갈등 모델’(age conflict model)로 부르는 어윈(Sarah Irwin)은 터너의 논문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세대갈등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Irwin 1996). 어윈은 복지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세대갈등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생애과정’(life course)의 다양한 국면에서 다양한 연령집단이 세대에 관계없이 불평등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어윈의 주장에 대해서 터너는 반론을 통해서 세대를 사회계층화의 차원으로 부각시키려는 자신의 논지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데,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경제문제를 둘러싼 세대갈등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윈을 비판하고 있다(Turner 1998). 그러나 세대갈등을 강조하고자 하는 터너의 노력은 다른 한편에서 세대 간 차별화의 요소로서 경제적 불평등이나 경제자원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나 트라우마의 공유 등 역사적 경험의 공유에 바탕을 둔 심리적인 차원도 언급하고 있다.

터너는 특정 개인이 속한 연령집단과 상관없이 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령 집단이 동일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어윈이 주장한 대로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터너는 세대의 특성 혹은 세대 간 차이는 결코 여론조사의 답변을 통해서 적절히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과 그가 속한 연령집단이 경험한 역사와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반론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터너는 모든 연령집단에 걸쳐서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최소한 자원을 두고 나타나는 세대갈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어윈의 논지에 대한 반론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터너는 세대의 정의와 관련하여 ‘특정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세대갈등을 다루었기 때문에 세대 내의 공통적인 요소를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최소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함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의식공유’ 등을 또한 세대를 규정하는 요소로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수정된 터너의 세대계층론 속에서는 특정의 ‘역사적 맥락’에서 드러나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의식공유가 최소자원을 둘러싼 갈등만큼이나 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터너의 인식은 사회계층론을 주장하면서도 만하임적인 세대이론을 받아들여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특정의 역사적 맥락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터너의 수정된 주장에 따라서 이 글은 세대경험의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 주목하여 ‘공동의 역사적 경험의 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세대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4) 디일의 세대계층론과 세대 간 소통부재의 요인

마지막으로 세대갈등을 다루는 논의는 디일(Jennifer J. Deal)의 저서(Deal 2007)에서 등장한 세대 간 의사소통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디일은 자신의 저서에서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은 실제로는 본질적인 ‘가치의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이라기보다는 ‘표현양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젊은이와 기성세대가 함께 일하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이들 세대 사이에는 실제로는 본질적인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다만 동일한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디일은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본질적인 가치의 갈등이 아니라는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가치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마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두 세대가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디일은 이 두 세대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드러내는 언어표현 등의 행태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즉 동일한 가치를 표현하는 언어양식, 태도 등의 차이로 인해서 마치 갈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두 세대가 서로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디일은 예컨대 상대방에 대한 ‘존경’(respect)의 행태적 표현양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키고 있다. 즉 존경을 측정하는 다양한 행태적 항목 가운데 기성세대는 “내 말에 충분한 비중을 둔다” 혹은 “내가 말한 대로 한다”라는 표현을 (상대방이) 자신을 존경하는 표현으로 인식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이와는 달리 “내 말을 경청한다” 혹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등의 태도를 (상대방이) 자신을 존경하는 표현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실제로 상대방이 그렇게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기성세대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이는 존경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Deal 2007: 36).

문제는 두 세대가 모두 상당한 부분 사회적 가치를 실제로 공유하고 있어도 이를 표현하는 행태, 태도 등의 차이로 인해서 세대갈등의 양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 기대를 ‘조절’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상호기대조절의 메카니즘으로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대 간 ‘소통’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가치를 공유함에도 표현방식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오해를 풀어내는 방법은 서로의 태도와 행태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소통을 증진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의 경우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 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세대 간 소통의 부재’라는 원인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V. 세대 여론조사 자료분석을 통해서 본 한국 세대갈등의 요인

이 장에서는 제I장에서 제시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제III장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소개된 네 가지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의 세대갈등의 원인을 경험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선행연구와 관련이 있는 세대갈등의 네 가지 원인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세대갈등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70대 및 20대 연령집단과 구별되는 70대 전후세대 및 20대 N포세대 등의 차별화된 특징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sup>11)</sup>

〈표 2〉 ‘매우 공감/대체로 공감’의 비율(단위: %)  
(괄호 안의 숫자는 a, b, c, d, e집단별 세대갈등 요인의 순위)

	1. 공통의 역사경험 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			2.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3.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			4. 세대 간 소통부재		
	매우 공감	대체 공감	전체	매우 공감	대체 공감	전체	매우 공감	대체 공감	전체	매우 공감	대체 공감	전체
a. 70대와 20대를 합친 전체 연령대	13.3	64.4	77.7	30.0	49.8	79.9	20.5	55.1	75.6	28.0	56.7	84.7
b. 70대	9.7	72.2	81.9	25.0	51.4	76.4	14.1	56.3	70.4	20.8	62.5	83.3
c. 70대 전후세대	11.4	68.6	80.0	25.7	42.9	68.6	17.1	54.3	71.4	25.7	65.7	91.4

11) 70대의 전후세대와 20대의 전후세대는 이미 각주 5)와 각주 6)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명칭에 대해 강한 정체성을 보이는 세대로 정의되어 있다.

	1. 공통의 역사경험 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			2.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3.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			4. 세대 간 소통부재		
d. 20대	12,3	61,7	74,0	25,5	47,8	73,3	22,5	55,6	78,1	28,4	57,4	85,8
e. 20대 N포세대	15,0	56,7	71,7	33,0	45,3	78,3	28,3	55,0	83,3	33,3	48,3	81,6

〈표 3〉 ‘매우 공감/대체로 공감’을 합한 전체 공감의 비율(단위: %)

(괄호 안의 숫자는 a, b, c, d, e집단별 세대갈등 요인의 순위)

	1. 공통의 역사 경험 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	2.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3.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	4. 세대 간 소통부재
a. 70대와 20대를 합친 전체연령대	77,7(3위)	79,9(2위)	75,6(4위)	84,7(1위)
b. 70대 연령집단	81,9(2위)	76,4(3위)	70,4(4위)	83,3(1위)
c. 70대 전후세대	80,0(2위)	68,6(4위)	71,4(3위)	91,4(1위)
d. 20대 연령집단	74,0(3위)	73,3(4위)	78,1(2위)	85,8(1위)
e. 20대 N포세대	71,7(4위)	78,3(3위)	83,3(1위)	81,6(2위)

## 1. 연령집단별 갈등원인 순위분석: ‘전체 공감’의 경우를 중심으로

### 1) 개괄적 분석내용

과연 70대 및 20대의 연령집단 70대 전후세대 및 20대 N포세대는 각각 세대갈등의 요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과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을 합하여 ‘공감’하는 응답자의 전체 비율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sup>12)</sup> 먼

12) ‘매우 공감’과 ‘대체로 공감’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매우 공감’의 비율이 세대갈등의 원인요인에 따라서 10% 내외이거나 이보다 적은 경우도 있고, 70대의 경우에

저 <표 2>을 토대로 70대와 20대 두 연령집단을 합친 전체연령대의 갈등순위를 살펴보면 ‘세대 간 소통부재’와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이 각각 84.7%와 79.9%로 응답하여 두 연령집단을 합쳐서 볼 때 이들 두 요인이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2>의 a열). ‘공통의 역사적 경험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와 ‘정치적 이념성향의 따른 차이’는 각각 77.7%와 75.6%로서 3, 4위에 머물고 있다. 2, 3, 4위 갈등요인 간의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세대 간 소통부재는 84.7%의 공감한다는 응답률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적 검토를 토대로 70대 연령집단과 이 가운데 전후세대, 그리고 20대 연령집단과 이 가운데 N포세대를 갈등원인을 통해서 서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앞의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 4개의 집단을 관통하여 일관적으로 동일한 순위를 보이는 원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세대 간 갈등요인을 1위 및 2위 순위를 중심으로 보면 70대 연령집단 및 70대 전후세대와 20대 연령집단 및 20대 N포세대 간에는 세대갈등의 원인을 둘러싸고 이견이 드러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세대갈등의 원인으로서는 1, 2위를 살펴보면 70대 연령집단과 70대 전후세대는 세대 간 소통부재를 각각 83.3%와 91.4%로 응답하고 있고(1위), 그 다음으로 공통의 역사적 경험부재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각각 81.9%와 80.0%로 응답하여(2위), 이 두 요인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20대 연령집단과 20대 N포세대는 세대 간 소통부재(20대 연령집단에서 1위(85.8%); N포세대에서 2위(81.6%)) 혹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의 차이(20대 연령집단에서 2위(78.1%); N포세대에서 1위(83.3%))를 세대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 2) 소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결과로부터 대강 두 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

는 전체 빈도의 수도 매우 작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두 항목을 합하여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여도 이 연구의 취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다.

째, 70대 및 20대 등 양대 연령집단과 70대 전후세대 및 20대 N포세대는 모두 세대 간 소통부재가 세대갈등의 주요원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70대 및 70대 전후세대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는 반면, 20대 및 20대 N포세대는 이와는 달리 세대 간 소통부재 못지않게 중요한 세대갈등의 원인으로 - 역사적 공감대의 부재보다는 -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20대 N포세대라는 정체성을 지닌 집단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분석 내용이 70대와 20대 간의 세대갈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고 보인다. 첫째, 70대 및 20대 등 양대 연령집단과 전후세대 및 N포세대가 모두 '소통부재'를 세대 간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세대갈등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세대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령으로 볼 때 청년세대와 노년세대, 그리고 정체성세대로 볼 때 전후세대와 N포세대가 서로 더 많은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늘려 간다면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는 세대갈등의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둘째, 반면에 앞의 분석결과는 이와 함께 다소 비관적인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70대 및 20대 등 양대 연령집단과 70대 전후세대 및 20대 N포세대가 소통부재 이외에 공통의 역사적 경험 부재(70대 및 70대 전후세대) 및 정치·이념적 차이(20대 및 20대 N포세대)의 요소를 세대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세대갈등의 해소를 다소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원인들이 쉽게 변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 원인요소들이기 때문이다. 70대 연령집단과 70대 전후세대가 세대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는 노년세대나 전후세대가 현재의 젊은 세대와 살아온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불가역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공감대의 부재라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세대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잠재적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대 연령

집단과 20대 N포세대가 중요시하는 세대 간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 역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체득되거나 혹은 사회화되고 학습된 정치적 정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성격의 원인요인이다. 즉 청년세대와 N포세대는 대체로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반면, 노년세대와 전후세대는 이념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사실은 역사적 공감대의 부재만큼이나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세대갈등을 해소하는데 넘어야 할 어려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

## 2. 연령집단 및 정체성세대 간 격차분석<sup>13)</sup>

앞 절의 분석에 이어서 이 절에서는 세대갈등의 원인요인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는 응답비율을 토대로 과연 어떠한 원인과 관련하여 70대 및 20대 연령집단과 그리고 70대 전후세대 및 20대 N포세대 간에 가장 큰 견해의 격차, 즉 이견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이후 과연 70대 및 20대 양대 연령집단 간의 차이와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차이에는 또한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과연 양대 세대 특유의 정체성세대, 즉 전후세대와 N포세대 사이에는 단순히 20대와 70대 연령집단 간의 차이 이상의 또 다른 어떤 특징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4>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70대와 20대 연령집단 간의, 그리고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세대갈등 원인 별 전체공감(‘매우 공감’ + ‘대체로 공감’)의 응답비율의 격차를 보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13) 이 소절의 분석과 관련하여 심사자 가운데 한 분은 이 분석이 ‘응답평균’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응답평균의 순위를 놓고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소절의 통계수치는 특정 설문에 대한 각 연령집단과 및 각 연령집단에 속한 정체성 세대의 ‘응답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소절의 분석은 어떤 평균 수치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 아니라 응답의 단순 비율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다.



〈표 4〉 ‘매우 공감/대체로 공감’을 합한 전체 공감의 비율의 차이 분석(단위: %)

	1. 공통의 역사 경험 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	2.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3.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	4. 세대 간 소통부재
f. 70대와 20대 연령집단의 응답비율의 차이: b-d	+6.9	+2.9	-7.7	+2.5
g.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의 응답비율 차이: c-e	+8.3	-9.7	-11.9	+9.8
f-g	1.4	12.6	4.2	7.3

\* 70대 연령집단과 20대 연령집단 간의 격차(b-d)의 순서:

이념성향 차이 -7.7 > 역사적 공감대 부재 +6.9 > 경제적 불황 +2.9 >  
세대간 소통부재 +2.5(단위: %)  
(b-d: 70대를 기준으로 ‘+’는 20대보다 70대의 비율이 큰 경우, ‘-’는 반대로  
70대보다 20대의 비율이 큰 경우)

\*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격차(c-e)의 순서:

이념성향 차이 -11.9 > 세대간 소통부재 +9.8 > 경제적 불황 -9.7 > 역사  
적 공감대 부재 +8.3(단위: %)  
(c-e: 70대 N포세대를 기준으로 ‘+’는 20대 N포세대보다 70대 전후세대의  
비율이 큰 경우, ‘-’는 반대로 70대 전후세대보다 20대 전후세대의 비율이  
큰 경우)

위에 적은 공감을 표한 응답비율의 격차를 살펴보면 70대와 20대 연령집단의 격차에 드러나는 현상과,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격차에 드러나는 현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양대 연령집단의 경우 가장 큰 응답 격차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와 역사적 경험의 공감대 부재로 인한 의식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세대갈등의 원인과 관련

하여 20대는 70대보다 훨씬 더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고, 70대는 20대보다 훨씬 더 역사적 공감대의 부재를 강조하고 있다. 기타 경제불황이나 소통부재의 경우 양대 세대 간 공감한다는 응답비율의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이 장의 제1절에 나타난 분석과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전체공감 응답비율의 격차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원인요인에 있어서 양대 정체성세대 간에 상당한 격차(c-e)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70대와 20대 연령집단 간의 격차(b-d)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더 크다. 뿐만 아니라 70대와 20대 연령집단의 경우는 경제적 갈등과 세대 간 소통부재의 경우 양대 연령집단 간 격차가 그다지 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각각 +2.9%와 +2.5%),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격차는 모든 원인요인에서 비교적 골고루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양대 연령집단에 있어서 격차가 별로 없었던 경제적 갈등과 세대 간 소통부재의 경우에도 양대 정체성세대 간에는 그 격차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각각 -9.7%과 +9.8%). 구체적으로 보면 1.역사적 공감대 부재에 따른 인식차이, 2.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3.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 4.세대 간 소통 부재 등 세대 간 갈등요인에 대해서 70대와 20대 연령집단이 보이는 응답비율의 격차보다,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가 보이는 응답비율의 격차가 1, 2, 3, 4 등 원인의 모든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세대갈등의 원인요인과 관련하여 70대와 20대의 응답비율의 격차는 1, 2, 3, 4 등 원인요인의 순서대로 +6.9%, +2.9%, -7.7%, +2.5%로 나타난 반면,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의 경우 응답비율의 격차는 +8.3%, -9.7%, -11.9%, +9.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절대값으로 볼 때 양대 연령집단 간 격차(f)와 양대 정체성세대 간 격차(g) 간의 차이((f-g)의 절대값인  $|f-g|$ )는 1, 2, 3, 4원인의 순서대로 1.4, 12.6, 4.2, 7.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불황과 관련된 경제적 갈등, 그리고 세대 간 소통부재 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단순한 연령집단(70대 및 20대)과 구분되는 연령집단별 정체성세대(전후세대 및 N포세대)을 통한

설명이 새로운 차원의 분석적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70대 및 20대 연령집단 간의 격차와 정체성세대 간의 격차는 세대갈등 원인요인의 순서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요인의 경우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부호가 나타나서 매우 흥미롭다. 먼저 원인요인의 순서를 보면 연령집단 간의 격차와 정체성세대 간의 격차에 있어서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가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각각 -7.7%과 -11.9%). 그런데 역사적 공감대 부재와 세대 간 소통부재의 경우 70대와 20대의 연령집단 간 비교에서는 역사적 공감대 부족의 격차가 +6.9%로 2위의 격차를 보였지만, 정체성세대 간 비교에서는 세대 간 소통부재가 +9.8%로 2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특이하다. 이에 더하여 경제불황이라는 원인의 경우 그 부호가 바뀌어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즉 연령집단 간 비교에서는 그 격차가 크지는 않았지만 70대가 20대에 비해서 경제불황이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는 응답이 더 많았던 반면(+2.9%), 연령집단 내 정체성세대 간의 격차를 보면 20대 N포세대가 70대 전후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비율로 경제불황을 세대 간 갈등의 원인으로 응답하고 있다(-9.7%).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냥 20대’가 아니라 ‘20대 N포세대’와 ‘그냥 70대’가 아니라 ‘70대 전후세대’ 간의 세대갈등 원인을 비교해 보면, 20대 N포세대의 경우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을 세대갈등의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20대 연령집단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체성세대를 통해서 보는 세대갈등이 단순한 연령집단을 통해서 보는 세대갈등보다 훨씬 더 격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V. 결 론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대계층론이 세대갈등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네 가지의 갈등원인 요인 - 공통의 역사적 경험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

세대 간 소통부재-가운데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70대 및 20대 연령집단과 70대 전후세대 및 20대 N포세대는 모두 소통부재를 세대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70대는 이와 함께 연령집단과 전후세대 모두 역사적 공감대 부재를 아울러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반면, 20대는 연령집단과 N포세대 모두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를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과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합쳐서 보면 70대와 20대 연령집단보다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갈등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네 가지 각 원인요인별 의견의 격차는 70대 연령집단과 20대 연령집단 간의 각 원인요인별 의견의 격차와 비교해 볼 때 모두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불황에 따른 갈등과 세대 간 소통부재라는 두 원인요인에 있어서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의견의 격차는 단순한 70대 연령집단과 20대 연령집단 간의 의견의 격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의 |f-g| 참조). 그리고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원인요인별 의견의 격차는 네 가지 요인에 있어서 그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표 4〉의 c-e 참조), 70대 연령집단과 20대 연령집단 간의 의견의 격차는 원인요인별로 꽤 편차가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표 4〉의 b-d 참조).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히 70대 및 20대 연령집단과 다른 각도에서 70대 전후세대 정체성세대와 20대 N포세대 정체성세대를 별도로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 글의 서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세대갈등을 비롯한 세대문제의 분석은 생물학적인 연령집단과 함께 정체성세대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갈등은 분명히 양극화된 연령집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통의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지닌, 70대 및 20대 특유의 정체성세대 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가 시사하는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이 모두 양대 연령집단 및 양대 정체성세대 간의 소통부재를 세대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대 간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과제는 이러한 소통부재의 원인 및 소통의 촉진을 위한 방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미 노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대갈등에 관한 이 연구결과가 던져주는 또 다른 향후의 연구과제는 연령집단과 구별되는 정체성세대 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세대갈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사회적 태도의 경우에도 드러나는가 하는 점을 추가적으로 밝혀보는 작업일 것이다. 단지 전후세대 혹은 N포세대뿐만 아니라 산업화세대나 민주화세대 등으로 불리는 특정한 세대가 그들이 속한 연령집단 일반과 차별화되는 정책이나 사회적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특정한 사건이나 기억과 자신을 일체화하는 정체성세대의 구별된 행태적, 심리적 특징을 밝혀보는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수(2014). “청년실업률 높는데 정년 연장 왜 필요할까요?” 조선경제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B10쪽.
- 박재홍(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81: 10-34.
- 박재홍(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75-99.
- 박재홍(2017). 『세대 차이와 갈등: 이론과 현실』. 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 박경숙 외(2013). 『세대 갈등의 소용돌이: 가족·경제·문화·정치적 메커니즘』. 서울: 다산출판사.
- 박길성(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3-25.
- 윤상철(2009). “정치세대와 정치균열: 1997년 이후 출현과 소멸의 동학.” 『경제와사회』 81: 61-88.
- 정순돌·정주희·김미리(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5-24.
- 정순돌·임정숙·홍영란·박난숙·최성문(2018). “세대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 집단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인학』 38-1: 125-142.
- 정재훈(2016). “청년세대와 세대갈등, 사회적 연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 논문.
- 정철근(2014). “‘국제시장 세대’와 ‘미생 세대’가 공생하려면.” 중앙일보 1월 5일 월요일: 28쪽.
- 최유석(2016).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 파주: 한울엠플러스.
- 한국리서치(2016). “세대별 정치사회인식에 대한 조사: 교차분석표.” 7월 19일.
- Edmunds, June and Bryan S. Turner(2005). “Global Generations: Social Chang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6-4: 559-577.

- Foner, Ann. 1974. "Age Stratification and Age Conflict in Political Lif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2 (April): 187-196.
- Foner, Ann(1974). "Age Stratification and Age Conflict in Political Lif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2: 187-196.
- Ipsos MORI Social Research Institute(2017) "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https://www.ipsos.com/ipsos-mori/en-uk/bbc-global-survey-world-divided>  
<https://www.ipsos.com/sites/default/files/ct/news/documents/2018-04/bbc-global-survey-a-world-divided-2018.pdf>
- Irwin, Sarah(1996). "Age related distributive justice and claims on resourc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7-1 (March): 68-92.
- Irwin, Sarah(1998). "Age, Generation and Inequality: A Reply to the Repl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2 (June): 305-310.
- Mannheim, Karl(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Paul Kecskemeti ed. *Karl Mannheim: Essays*. London: Routledge(originally published in 1927/28 and republished in 1952 and 1972): 276-322.
- Turner, Bryan S.(1989). "Ageing, status politics and sociological theor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0-4: 589-606.
- Turner, Bryan S.(1998). "Ageing and generational conflicts: a reply to Sarah Irwi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2 (June): 299-304.

○ Abstract

---

##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Generational Conflict: the Generational Conflict between Age Groups of the 20s and the 70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tion Status Theory

*Sohn, Byoung Kwon\* · Park, Kyungmee\*\* · Yoo, Sung-jin\*\*\* · Jeong, Han-Wool\*\*\*\**

The two age groups of the 70s and the 20s on the one hand and the two generations of the Post-Korean War in the 70s' age group and the N-GiveUps in the 20s' age group are all agreed on emphasizing more the lack of communication as the leading cause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an other causes such as lack of common historical experience, economic hardship, and politico-ideational difference. However, both the 70s' age group and its Post-Korea War generation tend to highlight the lack of common historical experience as the cause of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 as well, while the 20s' age group and its N-GiveUps generation raise the politico-ideational difference as another main cause of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 as well.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interesting findings of this research is that inter-generational conflict is more severe between the 70s' Post-Korean War generation and the 20s' N-GiveUps generation than between the 70s' age group and the

---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ung-A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Scranton Honors Program, Ewha Womans University

\*\*\*\* Research Designer, Public Opinion Section, Hankook Research



20s' age group in general. This implies that intergenerational dialogue is in urgent need as both age groups and both generations all bring forth the lack of communication as the leading cause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Key words** : generation status theory,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20s' age group, the 70s' age group, the Post-Korean War generation, the N-GiveUps generation

논문투고일 : 2019.06.27

심사완료일 : 2019.08.12

게재확정일 : 2019.08.17